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9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휴전에 한 숨 돌린 미국 증시..2%대 상승 마감

- 미국-이란 2주 휴전 합의에 미국 증시 안도랠리: 다우 +2.85%, 나스닥 +2.80%
- 안도랠리에도 남은 갈등의 불씨(ft.레바논)
- 연준, 지난 FOMC서 금리 경로 '양방향' 가능성 논의

Summary

미국증시 일제히 급등

4월 8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전일 '데드 라인'을 90분여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과 종전 협상,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합의에 극적으로 도달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급등.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2.85% 상승한 47,909.92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2.51% 상승한 6,782.81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2.80% 상승한 22,634.96에 거래를 마쳤고,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2.97% 상승 마감함. S&P500과 나스닥은 이로써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18.39% 하락한 21.04를 기록.

(다우 +2.85%, 나스닥 +2.80%, S&P500 +2.51%, 러셀2000 +2.97%)

안도랠리, 그러나..(ft.레바논)

미국과 이란이 전일 협상 시한을 불과 90여분 남겨둔 상황에서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위험 선호(Risk-On) 심리가 급속도로 확산. 주가 지수는 급등하고 달러 가치와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으며 국제유가는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는 조건으로 2주간 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란 정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은 협상이 진행되는 2주간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다고 밝힘. 양국은 오는 11일부터 중재국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협상에 들어감.

다만 양측의 조마조마한 움직임은 여전. 걸프 지역의 미국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여전히 진행 중. 여기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지속되고 있어 갈등 재고조의 강력한 빌미로 작용하고 있음.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헤즈볼라를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습을 이어가고 베이루트를 재타격. 이란이 이에 반발해 파키스탄 측에 휴전 위반 문제를 공식 제기했으며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는 레바논 내 침략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함. 이란은 이번 휴전과 함께 요구한 10개 항에 '헤즈볼라 등 이란의 동맹에 대한 지역 내 전쟁 전면 중단'이 분명히 포함돼 있는 만큼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에 대해 우리가 가지

고 있는 깊은 역사적 불신은, 모든 형태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온 데에서 비롯된다"며 "이란이 제안한 10개 조항에서 3개가 위반됐다"고 강조함. 이와 함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자 휴전, 협상은 비합리적"이라며 오는 11일 파키스탄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정된 미-이란 고위급 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레바논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건 별개의 분쟁'이라고 말했으나 이 날 오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어느 정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언급함.

한편 이란은 전일 휴전 발효 후 한 때 재개됐던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이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 탓에 다시 중단됐다고 파르스 통신을 통해 보도. 실제 해상 항적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해협 출구를 향해 운항 중이던 파나마 선적 유조선 '오로라호'가 오만 무산담 연안 인근에서 갑자기 항로를 변경새 180도 회전한 뒤,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으로 회항한 것으로 확인됨. 회항이 에너지 수송이 집중되는 곳이자 지정학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전략적 요충지 중 한 곳인 이란 라라크섬과 무산담 반도 사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봉쇄가 시작됐음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존재.

이렇듯 미국과 이란의 기본적 휴전 합의에도 양측의 협상 조건에 실제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한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향후 산발적 충돌과 그로 인한 시장 심리 위축은 지속될 가능성.

연준, 금리 경로 '양방향' 가능성 논의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위원들이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체될 가능성을 경계해 향후 기준금리 경로에 대해 인하 뿐 아니라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는 '양방향'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

이 날 3월 17~18일 이틀간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 연준 위원들은 최근 몇 달간의 인플레이션 둔화와 관련해 추가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 위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향후 물가 흐름에 있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으며 대다수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로 돌아가는 과정이 예정보다 더뎌질 수 있으며 이에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

정책 경로와 관련해서도 많은 참석자는 물가가 예상대로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유지했지만, 이들 중 소수는 최근 물가 지표를 반영해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늦췄다고 말함. 나아가 일부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금리 목표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의사록은 이에 따라 일부 참석자들의 경우 금리 결정과 관련해 인하, 그리고 인상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하는 '양방향 묘사'를 성명에 담아야 할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해.

이외에도 위원들은 중동 전쟁 장기화가 기업 심리를 위축시켜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

특징종목

빅테크 강세: 테슬라는 예외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빅테크 전반이 강세로 시장 상승을 견인. 엔비디아(+2.10%), 아마존 닷컴(+3.46%), 구글 알파벳(+3.56%), 마이크로소프트(+0.55%).

메타 플랫폼스(+6.50%)는 암호명 '아보카도'로 진행하던 AI 모델 개발 계획을 완료해 이날 AI 새 모델 '뮤즈 스파크'를 공개. 메타는 지난해 4월 공개한 AI 모델들이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자 이후 1년여 거액을 들여 새 모델 개발에 몰두해 왔으며 이번에 공개한 '뮤즈 스파크'는 기존 라마 팀이 아닌 새로 설립한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내놓은 첫번째 AI 모델. 이번 '뮤즈 스파크'는 오픈 소스 전략으로 공개했던 이전 라마 등의 모델과 달리 오픈AI나 구글처럼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으로 전략을 전환. 메타는 이 날 뮤즈 스파크가 설계상 작고 빠르지만 과학, 수학, 보건 분야의 복잡한 질문을 추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수주일 안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메신저에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 아울러 안경 업체 레이밴과 협업해 출시한 레이밴 메타 AI 글래스에도 '뮤즈 스파크'를 적용할 계획. 이 소식 이후 주가도 급등.

다만 테슬라(-0.98%)는 이 날 시장 전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모습으로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음. 최근 분기의 인도량 부진과 비야디 등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JP모건의 혹평 등이 냉각된 투자심리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6.34% 급등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무려 6.34% 급등.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기대는 에너지 뿐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병목에 대한 우려도 완화시킴. 구성 30개 종목이 모두 급등한 가운데 TSMC(+5.96%)와 브로드컴(+4.99%), AMD(+4.64%)가 5% 안팎 상승했고, ASML(+8.7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7.72%) 등이 크게 상승. 이외 샌디스크(+9.86%), 시게이트 테크놀로지(+5.88%), 램 리서치(+9.8%), 웨스턴 디지털(+8.60%), ARM 홀딩스(+3.51%),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8.87%) 등도 동반 강세.

전일 테슬라(-0.98%)가 자체 반도체 생산 시설 '테라팹'을 건설하기 위해 인텔(+11.42%)과 손잡았다는 소식에 급등했던 인텔은 이 날도 두드러진 상승 탄력을 보임.

금리 하락: 주택 관련주 강세

유가 급락과 달러 약세, 국채 수익률 하락은 전반적인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주택 시장 관련주에도 호재로 작용함.

장기 금리 하락에 따른 모기지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로 주택 매물 사이트 질로우 그룹(+1.57%), 대출 기관 로켓 컴퍼니즈(+4.76%) 그리고 대표적인 주택건설 ETF인 SPDR

S&P HOMEBUILDERS ETF(+5.57%) 등이 상승함. 주택 자재 판매점 홈디포(+4.45%)도 시장 대비 강세.

유가 급락: 에너지·화학·비료↓, 여행·항공·크루즈 ↑

이 날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가의 급락과 그로 인한 연쇄 효과. 국제유가가 WTI 기준 2020년 이후 6년여만에 최대폭 하락하자 전쟁 발발 이후 유가 상승을 재료 삼아 상승했던 에너지, 화학, 비료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인 반면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온 여행, 항공, 크루즈주는 강세.

엑슨 모빌(-4.69%)과 셰브론(-4.29%)이 각각 4%대 하락했고 APA(-9.80%), 다이아몬드백 에너지(-4.62%), 할리버턴(-2.38%), 코노코필립스(-4.97%), 옥시덴털 페트롤리엄(-5.04%), EOG 리소시스(-3.59%) 등 에너지주 전반이 약세.

라이온델바젤 인더스트리스(-7.53%), 다우(-5.14%) 등 화학주가 큰 폭 하락했으며 CF 인더스트리스(-5.70%) 등 비료주도 하락.

반면 델타 에어라인스(+3.75%),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6.68%), 아메리칸 에어라인스(+5.55%) 등의 항공주와 카니발(+11.23%),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라인 홀딩스(+7.63%),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4.31%) 등의 크루즈주도 강세. 이외 익스피디아(+5.62%),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4.98%), 에어비앤비(+5.15%) 등 여행, 숙박 관련주도 강세.

한편 금광업체 뉴몬트(+3.05%)는 국제 금값 상승에 힘입어 강세. 금가격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달러와 유가가 하락하며 약 3주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 배릭 골드(+2.31%), 킨로스 골드(+4.65%) 등도 상승. 광산 업체 프리포트 맥모란(+7.14%)은 구리 가격 상승에 강세. 구리 가격은 미국,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완화되며 강세.

이외 개별 특징주

의류업체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드 컴퍼니(+10.65%)는 1분기 매출과 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해 급등. 회사는 직접 소비자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으며 연간 이익 가이던스도 상향. 이외 의류 업체 갭(+3.526%)과 애버크롬비 앤드 피치(+4.09%)도 강세.

하기스 기저귀와 클리넥스 티슈 제조사인 킴벌리 클라크(+4.25%)는 전일의 하락을 딛고 반등. 하루 전 회사는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창고에는 티슈와 화장지 제품이 보관돼 있다고 밝힘. 다만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짐.

팔란티어 테크(-6.20%)는 기술주 상승 흐름과 대조적으로 급락. 지난 분기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유례없는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기업 가치와 영국 내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악재가 심리를 짓누르는 모습.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수익비율 PER은 약 261배, 주가매출비율은 80.2배에 달해. 영국 내 공중 보건 및 국방 사업에 대한 규제 당국

의 심사 강화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을 비롯한 내부자들이 총 2억 9,210만 달러 주식을 지난달 매도했다는 소식도 주가 약세 요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 급락 후 낙폭 축소

미 국채 금리는 단기물과 장기물 모두 하락(가격 상승)했으나 낙폭 축소 혹은 소폭 반등하는 등 변동서 확대. 유럽 거래까지는 유로존, 영국 국채 등과 함께 미 국채 가격도 크게 하락했으나 뉴욕 장으로 접어들며 휴전 합의 균열을 시사하는 소식들이 전해져 미 국채 금리 낙폭이 축소. 오후 들어 실시된 국채 10년물 입찰도 수요가 다소 부진해 금리 낙폭 축소 요인으로 작용.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0.2bp 하락한 3.7855%를 기록했으며 10년물 금리는 0.2bp 하락한 4.291%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소폭 상승으로 돌아섬.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반영. 12월까지 금리가 25bp 인상될 가능성은 미미한 수준이며 25bp 인하 가능성은 20% 수준으로 높아짐.

달러 사흘째 약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3거래일 연속 하락. 미국과 이란의 전격 휴전 합의로 급락하던 달러는 다만 뉴욕장 들어 이번 휴전에 대한 여전한 파열음이 확인되자 점진적으로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8선 중반까지 하락하기도 했음. 하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미국-이란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고 이란은 이와 관련해 곧 있을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시사.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 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이란의 공격도 이어짐. 이에 달러는 낙폭을 줄여 99.178선까지 회복.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자제하기로 했다는 JD밴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에 다시 99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잠시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99선 재차 상회.

유로-달러 환율은 0.636% 상승한 1.1668달러, 파운드-달러 환율은 0.895% 급등한 1.340달러를 기록. 달러-원 환율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종가 1,470.60원 대비 8원 60전 상승한 1,479.20원에 야간 거래를 마침. 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478.80원을 기록.

WTI 6년래 최대폭 하락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급락.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3.29% 하락한 배럴당 94.75달러에 마감. 2022년 3월 이후 하루 낙폭으로는 최대.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16.41% 하락한 배럴당 94.41달러에 마감. 이는 2020년 4월 이후 무려 6년만의 최대 낙폭. WTI 선

물가는 이 날 하락으로 지난달 25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회귀.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전장 대비 15.3% 급락해 유로화와 파운드화 강세 배경으로 작용함.

장 중 유가와 금리, 달러 가치가 하락하며 금과 은 등의 귀금속 가격도 반등했으며 전쟁 장기화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해 하락하던 구리는 우려가 일단 완화된 가운데 4% 가까이 상승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